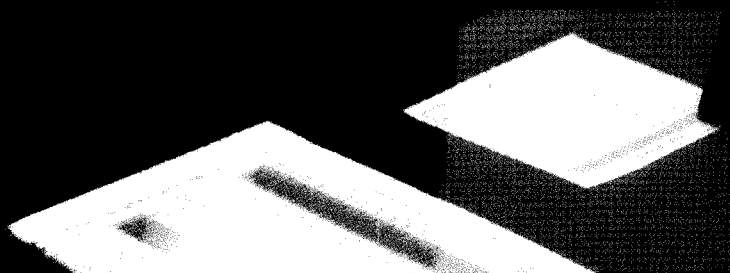




업체탐방



(주)동진레벨, 국내 최초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 개발



1993년 10월 동진기업으로 설립된 (주)동진레벨(대표 김진술)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지인이 종계장을 운영하면서 난상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란수거를 위해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난상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 국내 순수 기술과 연구과정을 통해 목재형 자동난상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왔다.

국내 시판되는 난상 대부분이 철재(아연)나 목재 소재로 제작된 제품인 상황에서 (주)동진레벨은 '목재형 자동난상'을 제작·판매하면서 닭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자랑했고, 무엇보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해체가 간편해 청소하기 용이한 강점을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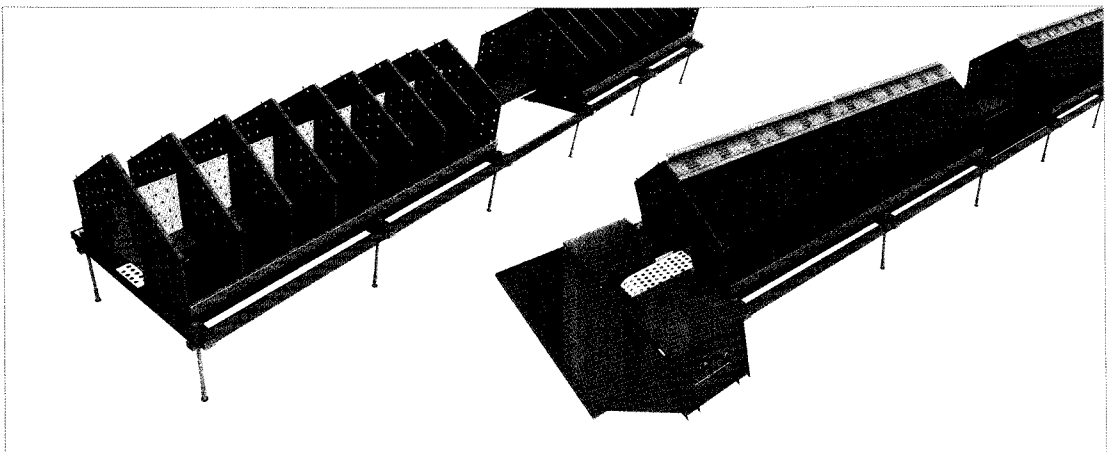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해 겨울 경기도의 한 농가를 방문한 김진술 대표는 신제품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다. 당시 김 대표는 자사제품을 권유했지만, 목재형 소재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아무리 청소를 하더라도 목재의 미세한 틈 사이에 병원균이 상재할 가능성으로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장 취약한 문제점을 깨달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월간 설계도면을 만들고, 8개월에 걸친 노력끝에 금년 7월 완성된 제품이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이다.

병원균 완벽 제거,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

기존 조립식 난상의 강점을 살리고, 소재에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연구 끝에 새로 출시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은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며, 눈비를 맞아도 부패나 변형이 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볼트·너트 등 별도의 부속 없이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후 고압세척을 한번 스치면 먼지 한 점 남지 않아 병원균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립 후·분리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난상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외부에 반출하기 어려워 닭 출하 후 계사청소를 위해 난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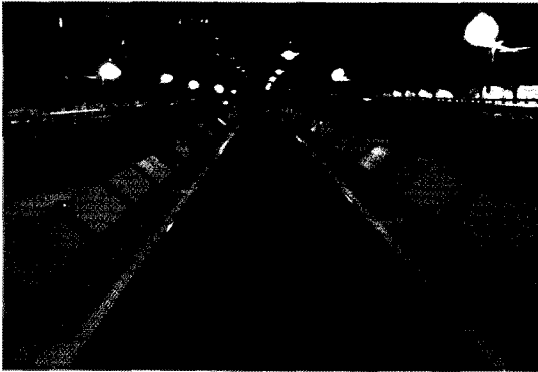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



업체탐방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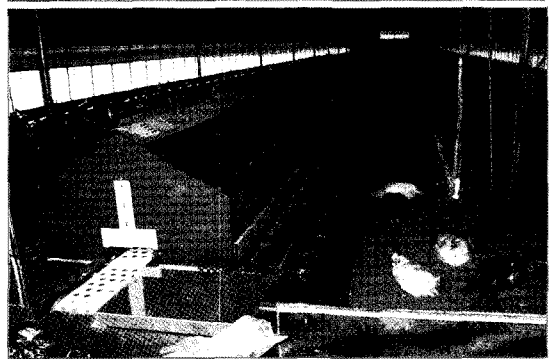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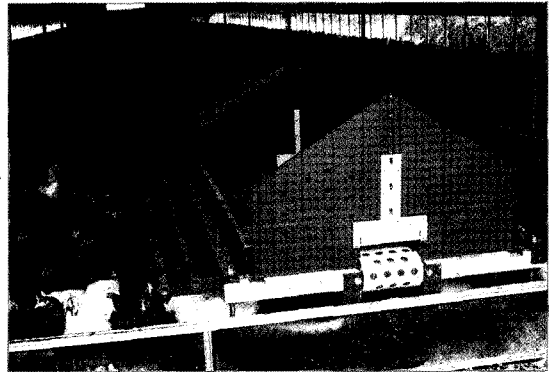
(주)동진레벨에서 제작된 과거의 '목재형 자동난상'

천정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중한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한 설비비용과 안전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가볍기 때문에 천정으로 올리기도 쉽지만 올리지 않고 해체 후 다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시하기까지 금형을 만드는 데에만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고, 모든 기술적인 부분과 설계도면까지 모두 김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미 국내 특허는 물론 세계 PCT특허를 출원 중인 것으로 농가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수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압출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멍에 병원균 및 유해세균이 잔존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척이나 청소, 소독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질병의 온상처로 작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본 제품은 사출성형으로 생산하여 청소 및 소독 시 난상 부품에 잔

<현재>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 7월초에 출시되자마자 전북 남원과 고창의 농가에 설치된 모습

류한 병원균이나 먼지 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계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질병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해 및 조립에도 편리함을 극대화 하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계사 규모, 형태에 따라 3종류로 출시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은 계사형태와 농장주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세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첫 번째 군사난상.

군사난상은 폭과 칸이 커서 계사 폭이 넓은 형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란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도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양 라인에 난상을 설치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절감되어 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두 번째 개별난상.

개별난상은 군사난상에 비해 폭과 칸의 규격이 작다. 한 칸의 수용능력이 1~2수만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계사 안에 두 라인의 난상이 필요로 한 농가에 적합한 제품이다.

세 번째 벽붙임난상.

벽붙임난상은 계사 폭이 좁은 유정란농장에 적합한 형태이다. 일반 종계장의 계사(폭 12m)에 비해 유정란농장은 폭이 9m가 대부분으로 좁은 계사의 벽면에 난상을 붙여 실질적으로 계사안 효율면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방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제시

김 대표는 방란을 줄이기 위한 몇가지 방법도 제시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종계는 23~24주에 초산

을 시작하기 때문에 20주에 난상을 설치해 적응 및 훈련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시산전 바닥에 깔짚을 최대한 적게 깔고, 닭들을 난상쪽으로 유도하는 훈련을 시킨다.

둘째, 일정한 양의 환기와 온도, 습도 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과 폐사를 막는 기본수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급이기, 급수기, 점등 배열에 신경써 방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대표는 이 몇가지 시설과 사양관리만 잘 되면 어느 난상을 설치하더라도 방란율, 산란율, 배부율이 좋으며 인건비는 줄고,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그간 미국 애틀란타 양계박람회, 독일하노버 축산박람회, 태국·중국 VIV 축산박람회 등 매년 참관하면서 본 난상 제품들 중 대부분 합석철판(아연 소재)의 고정식 난상이 전시된 것을 보고 왜 항상 무거운 제품을 천정에 들어 올릴 생각만 하는지,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출시한 제품이 ‘목재형 조립식 난상’이었고, 소재에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성형 조립식 난상’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공해 반응을 지켜본 이후 내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축산박람회를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라며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 홈페이지 : www.levelbong.co.kr

■ 문의 : (02)456-6262